

1890년대 러시아의 극동정책과 러일관계 속 쉬삐이에르의 역할

－ 2021년도 1학기 전쟁과평화 도반보고서 －

2018115005 김다혜

2020190179 최동민

목차

- I. 서론 및 문제 제기
- II. 조선 파견 이전 쉬삐이에르의 행적
- III. 쉬삐이에르의 1차 조선 파견과 아관파천
- IV. 쉬삐이에르의 2차 파견과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 V. 결론
- VI. 참고 문헌

I. 서론 및 문제 제기

(1) 문제 제기¹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쉬뻬이에르(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Шпейер, 1854~1916)는 제정 러시아의 외교관으로서 1880-1890년대 제정 러시아의 극동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1885년 조선 정부와 러시아 군사 교관 파견을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두 차례 조선을 방문하였다. 이후 그는 1886년에서 1898년까지 조선에 두 차례 공사로 부임하면서 아관파천, 러시아 군사교관, 재정고문 초빙과 한러은행 설립 등의 정책을 통해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그의 외교 정책을 카를 이바노비치 베베르(Карл Иванович Вебер)와 비교하며, 그가 가진 호전성을 비판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었다. 고종의 고문을 도맡으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던 베베르와 달리 쉬뻬이에르는 호전적이고 다혈질의 인물이었으며, 그의 그러한 특성으로 인해 러시아의 대(對)대한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보는 입장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들과 1차 사료들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쉬뻬이에르가 슬라브주의에 따라 개인적으로 급진적인 극동 정책을 펼쳤던 것이 아니라 러시아 외무부가 일본을 견제하고 한국에서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서 의도적으로 그의 호전성과 결단력을 활용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¹ 본문에 삽입된 두 개의 사진은 러시아의 정보 검색 사이트 '얀덱스(Яндекс)'에서 찾은 것이다. 첫번째 사진은 명확한 출처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두번째 사진은 후술되는 니콜라이 이뽀스키의 일기에서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 사진은 1908년 7월 세르게이 짜하미로브(Сергей Тихомиров) 주교의 일본 도착을 기념하는 축하행사에서 찍은 것으로, 쉬뻬이에르는 첫 줄 오른쪽에서 네번째에 앉아있다. 첫번째 사진의 인물과 상당히 흡사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첫번째 사진 역시 쉬뻬이에르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

(2) 선행연구 검토

쉬삐이에르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이 삽입된 연구들은 상당수 존재하지만 국내 연구 중 쉬삐이에르 개인의 행적과 조선에 미친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는 김영수(2017)의 ‘주한 러시아공사 쉬삐이에르의 외교활동과 한국정책’, 그리고 김종헌(2008)의 ‘슈페이에르와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조선 내 외교활동 - 1884~1894’가 존재한다. 전자는 주로 А В П Р И(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의 자료를 활용하여 1895년 말 쉬삐이에르의 1차 파견과 아관파천, 1897년 말 쉬삐이에르의 2차 파견을 중심으로 그가 조선에서 행한 외교 정책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김영수(2017)의 연구는 김종헌(2008)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인데, 김종헌(2008)은 주로 1884년과 1885년 쉬삐이에르의 조선 파견과 제1차, 제2차 한러밀약설에 관하여 조명하고 있다. 두 연구가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쉬삐이에르에 대한 결론은 그의 경솔하고 무분별한 행동들이 러시아가 조선 내에서 이권을 상실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김종헌(2008)은 한러밀약설과 관련하여 조선에 파견되었던 쉬삐이에르가 개인적 자격으로 조선에 파견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공사관들과 대표를 방문하고 조선 국왕을 알현하여 러시아 군사 교관 파견을 제안하는 ‘월권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의 조선 정책에 대한 해외 열강들의 오해가 증폭되어 오히려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합리화시켜주는 영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수(2017)는 아관파천이 러시아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쉬삐이에르가 독단적으로 관여했던 것이며, 이 때문에 그가 일본에 진출되었고, 2차 파견 시에는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이권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결국 1898년 러시아 군사교관과 탁지부 고문 철수라는 경솔하고 무모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현상유지 정책을 추구하였으나 그의 유연하지 못한 외교 활동이 이에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의 그러한 배경에는 러시아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슬라브주의자적 면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가설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 1차 사료들을 토대로 재구성해보았다. 참고한 1차 사료들은 А В П Р И(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에 수록되어 있는 러시아 측 보고서들과 일본 외무성의 자료, 당시 발간된 영국 신문, 윤치호 영문 일기,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한 러시아정교회의 주교, 니콜라이 이뻬스키(Николай Японский)의 일기가 있다.² 특히 니콜라이 이뻬스키의

² 쉬삐이에르 등 러시아 외교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대부분 사실 관계의 확인 및 보고를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의 자료와 영국 신문 등은 상대적으로 반러 성향을 보이는 서술이 존재하며, 니콜라이 이뻬스키의 일기는 친일, 친러, 반조선의 성향을 보인다.

일기는 아관파천 및 당시 조선의 형세를 분석한 그 어떤 연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1차 사료로, 그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니콜라이 이븐스키는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동방정교회의 신앙을 전파한 주교이다. 그의 일기는 러시아 동방정교회 사이트³ 내 온라인 도서관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당시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동방 전문가였으며, 그는 쉬뻬이에르 외에도 극동 총독 알렉세예프,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 히트로보 등 다양한 러시아 인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쉬뻬이에르의 아내는 조선에 파견되기 전 니콜라이 이븐스키를 만나 독실한 동방정교회 신자가 되겠다고 맹세하였으며, 그들이 처음 만난 1895년부터 1901년까지 꾸준히 교류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따라서 그의 일기에는 쉬뻬이에르의 1차 한국 파견과 일본 귀환, 그리고 다시 2차로 한국에 파견되는 시점까지 그의 행적이 비교적 상세히 묘사되어 있으며 쉬뻬이에르의 개인적인 사생활까지도 다수 언급되고 있어, 개인으로서의 쉬뻬이에르를 참고하여 분석하기에 적절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또, 일본 해군성공문서고에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보고서를 입수하여, 쉬뻬이에르가 조선에 파견되기 이전에 일본에서 주일 러시아공사관 서기관뿐만 아니라, 주일 러시아공사의 교체 시기에 임시로 러시아 대리공사 직무를 맡았다는 것을 본고에서 밝혀두어 긴장의 러일 관계 속에서 쉬뻬이에르의 조선 부임은 러시아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었음을 보일 것이다. 본고의 본문에서는 수집한 1차 사료들을 바탕으로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교차 분석하면서 조선 파견 이전 쉬뻬이에르의 행적과 1, 2차 조선 파견 당시 조선의 형세와 내막 등을 재구성해보도록 한다.

II. 조선 파견 이전 쉬뻬이에르의 행적

한 인물에 대하여 분석하기에 앞서 그의 이전 행적을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쉬뻬이에르가 조선에서 행한 활동들과 그 본질적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이전에 체류했던 국가에서의 역할과 행적을 살펴보고, 왜 그가 조선 주재 공사로 부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파악해야만 한다. 앞서 설명한 니콜라이 이븐스키의 일기⁴에 따르면, 그가

본고에서는 각 사료들의 서술적 특성에 유의하며 최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³ https://azbyka.ru/otechnik/Nikolaj_Japonskij/

⁴ 니콜라이 이븐스키의 일기는 당시 일본이 사용하던 그레고리력(양력)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문의 날짜를 수정하지 않았다.

조선에 파견되기 전 일본에 온 쉬삐이에르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처음 들었던 것은 1895년 12월 1일이었다. 그는 쉬삐이에르에 대하여 “한국 공사로 부임하는 알렉세이 니콜라예비치 쉬삐이에르가 그의 아내와 함께 있었다. 그는 매우 믿음직한 사람인 것 같다. 상당히 끈기있고 심지어 고집스럽기까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결단력도 있다. 사람들이 말하길, 그가 페르시아에 비서로 있을 시절, 류츨 대사가 공식인 틈을 타 두 번이나 러시아로부터 군대를 불렀다고 한다. 이는 류츨 대사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은 행위였다. 그러나 이는 모두 러시아의 이익을 불러오게 되었으며, 이후 짜르의 승인을 받았다.”⁵라고 썼다. 또한 조선에서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이 발생한 직후인 2월 14일 해당 소식을 전달받은 니콜라이 이쁜스키는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쉬삐이에르는 그 곳에서 단호하게 행동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몇 주 전, 우연히 그와 함께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기차를 타고 가게 되었을 때, 그는 내게 자신이 페르시아 대사관에서 비서로 근무할 시절, 류츨 대사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두 번이나 러시아 군대를 불러서 ‘샤흐(Shah-페르시아의 왕)’를 협박했다고 말했으며, 모든 일은 항상 성공적으로 끝났고 감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위험을 안고 있는 듯하다. 이 일이 어떻게 끝이 날지는 신만이 알 것이다.”⁶ 니콜라이 이쁜스키의 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쉬삐이에르가 한국에 공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그의 가장 큰 업적은 페르시아 대사관의 비서 시절 그의 상관의 과오를 바로잡아 러시아 황제 짜르의 칭찬을 받은 일이었다. 이 일화는 니콜라이가 쉬삐이에르에 대하여 가장 처음 들은 이야기였으며 쉬삐이에르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다는 사실을 통해 당시 꽤나 유명한

⁵“Был 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Шпейер с супругой Анной Эрастовной; едет Посланником в Корею, и, кажется, Посланник будет надежный; человек с очень стойким, даже упорным, характером и с решительностью. Говорил, что в Персии два раза вызывал войска из России, никого не спрашиваясь в Петербурге (посланник Бюцов бывал в отпуску в это время; Шпейер, служа секретарем, исправлял его должность) и всегда чрез это настаивал на пользах России, и получал одобрение Государя.” (Равноапостольный Николай Японский. “Дневники. Том III, 1893–1899 гг.”, 1 декабря 1895. Азбука веры.)

⁶“Должно быть, недавно отправившийся туда посланником Шпейер действует там решительно. Рассказывал он (в вагоне, когда мы случились вместе едущими из Токио в Иокохаму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назад), что он, будучи секретарем Посольства в Персии и во время отлучки Посланника Бюцова исправляя за него должность, два раза грозил Шаху вызовом русского войска, – раз, кажется, и вызвал несколько, – и дело всегда кончалось полным успехом, за которое он получил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ероятно, и ныне подобный риск. Только чем кончится, Бог весть.” (Равноапостольный Николай Японский. “Дневники. Том III, 1893–1899 гг.”, 14 февраля 1896. Азбука веры.)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쉬삐이에르의 이러한 과거의 업적은 그가 한국에 공사로 부임하여 승진하게 된 것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19세기 말의 페르시아는 러시아와 영국의 세력 각축장으로서 ‘semi-colony’ 라고 불릴 정도였던 지정학적 요지였다.⁷ 그러던 중, 1889년 초 당시 주페르시아 러시아 공사였던 돌가루키(Николай Сергеевич Долгорукий)가 잠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영국이 페르시아와 논의하여 카룬 강의 항해권을 획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월에는 또다시 페르시아의 샤흐가 영국에게 Imperial Bank of Persia의 설립과 광산 채굴권을 양허했다. 이때 페르시아로 돌아온 돌가루키는 다시 러시아와 영국 사이의 이권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샤흐에게 페르시아에서부터 카스피안해까지 이르는 모든 강들의 항해권과 5년 동안 러시아 회사가 독점할 수 있는 철도 부설권을 요구했다. 그러나 철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일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철길이 깔리게 될 시 이득을 보는 이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도 포함될 것이었다. 따라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의 채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갔으며, 이 때문에 1889년 10월 돌가루키는 공사직을 내려놓고 불명예스럽게 귀국하게 되었다.⁸ 이후 10월 15일 그 자리에는 일본과 중국의 영사직, 그리고 일본의 대리 공사를 역임한 류츨(Евгений Карлович Бюцов)이 파견되었는데, 철도 관련 문제와 국내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의 페테르부르크에서의 출발이 다소 정체되었고, 그는 1890년 7월에야 테헤란에 도착했다. 그 전까지는 테헤란 공사관의 업무를 뽀지오(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Пожио)가 담당하게 되었으나 그가 1889년 12월 중순에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고, 이후 그를 계승한 인물이 바로 당시 대사관 비서였던 쉬삐이에르였다. 올렉 고콥(Олег Гокков)의 연구에 따르면 쉬삐이에르는 페르시아 대리 공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알바니아 슈코더르 지방에 있는 대사관에서 비서 겸 통역관으로 근무하였으며, 1878년에는 현재의 크로아티아에 위치했던 라구사 공화국에서 이오닌(Александр Семёнович Ионин)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1877-1878년 러시아-터키 전쟁에 참가했다. 이후 이오닌이 몬테네그로의 상주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쉬삐이에르도 그를 따라 체테닌으로

⁷ 19세기 전반에 걸쳐 러시아와 영국은 콘스탄티노플, 중앙아시아, 극동 등을 걸쳐 다양한 지역에서 세력을 다투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쟁은 곧바로 페르시아의 수도인 테헤란에서 공명되었다. 영국의 입장에서는 해상 무역과 연락의 수단으로서 페르시아 걸프만에서의 힘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부동항과 인도양에 대한 접근권을 얻는 것을 원했다. 그들은 무역 이권과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철도 부설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했다. (Balaghi, Shiva. "Nationalism and cultural production in Iran, 1848--1906." University of Michigan, 2008.)

⁸ John S. Galbraith. "British Policy on Railways in Persia, 1870-1900". Middle Eastern Studies Vol. 25, No.4(Oct., 1989), pp.480-505.

가서 러시아 공사관의 비서가 되었다. 1885년 그는 일본 공사관의 비서로 근무하였고, 1884년에서 1885년 두 번 한국에 방문한 바 있으며⁹, 1890년 1월부터 페르시아에서 근무를 시작했다.¹⁰

쉬삐이에르가 1890년 초 페르시아 주재 러시아 대리 공사로 있을 당시에 있었던 사건의 기록을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대학의 총장을 역임한 존 샘플 갤브레이스(John Semple Galbraith)의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당시 영국의 총리 솔즈베리(Robert Gascoyne-Cecil, The Marquess of Salisbury)와 페르시아 주재 영국 대사였던 울프(Henry Drummond Wolff)는 페르시아의 철도에 대하여 수에즈 운하처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 러시아, 영국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함께 자금을 대는 다국적 기업 설립을 구상했다. 그들은 이러한 계획을 러시아 짜르와의 대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었는데, 1890년 1월 쉬삐이에르가 페르시아의 대리 공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태도는 한층 더 완강해졌다. 그들이 공동 회사 설립에 대한 계획을 쉬삐이에르에게 제안했을 때, 쉬삐이에르의 반응은 “그러한 계획은 모두 영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영국이 러시아에게는 어떠한 비등한 이권을 제공할 것인지요? 예를 들자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특별 이권의 양허는 아주 좋을 것 같군요.”¹¹였다. 결국 이 계획은 쉬삐이에르의 강경한 태도로 인해 무산되고 말았다.¹²

위와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쉬삐이에르는 페르시아에서 영국과 대항하며 자국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매우 강경한 태도로 외교에 임하였다. 그의 단호한 외교술은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국익을 도모하였으며 러시아 외무부와 짜르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신임을 얻게 된 쉬삐이에르는 이후 정식 조선 주재

⁹ 이는 뮐렌도르프가 조선 내에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제1차, 2차 한러밀약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시 쉬삐이에르는 조선에서 발생한 갑신정변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조선의 보호국화에 대하여 러시아측에 수차례 요청한 뮐렌도르프를 직접 접견하는 것이었다. 1885년 6월 제2차 파견 당시 그는 고종에게 러시아 군사 교관 파견을 제안했는데, 고종은 자신이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없다며 거절했고, 이 때문에 러시아의 의도가 주변 국가들에게 사실보다 더 과장되어 전달되면서 해외 열강의 오해가 증폭되었으며, 영국의 거문도 점령이 합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한러밀약설에 관련된 쉬삐이에르의 역할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는 김종현. (2008).

슈페이에르와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조선 내 외교활동—1884~1894. 대동문화연구, (61), 125-163.

¹⁰ Олег Гоков, 『Очерки Персидской казачьей бригады(1878-1895): по русским источникам』, Университет Дмитрия Пожарского, 2018.

¹¹ “Any such scheme would be in the interests of Britain and what counter-advantage would Britain offer Russia? For example, a concession of special privileges in Afghanistan would be welcomed.”

¹² John S. Galbraith(1989).

러시아 공사로서 부임하여 이번에는 일본과의 세력 다툼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도모하게 된 것이다. 김영수(2017)의 선행연구에서는 쉬삐이에르의 국내 활동에만 초점을 맞춰 분석하면서,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을 자극하지 않고 청국에서의 완전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개입 정책보다는 현상유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의 ‘무분별하고 무모한 행동들 때문에 한국인은 러시아의 외교정책과 호의에 의문을 품기 시작’ 하였으며 ‘그의 유연하지 못한 외교활동의 배경에는 직선적인 성격과 러시아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슬라브주의자적 면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¹³ 그러나 앞선 쉬삐이에르의 행적들을 살펴보았을 때, 러시아 외무부가 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강경하고 고집스러운 외교 태도를 모를 리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쉬삐이에르가 조선 주재 공사로 파견된 시기는 1896년 1월 12일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후, 러시아가 나서서 요동 반도를 회부하라고 압박했던 삼국간섭이 있는 후였다.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계속해서 승기를 잡자 러시아 내에서는 자국이 극동에서 누리고 있던 이권을 모두 일본에게 빼앗길 것이며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를 압박할 것이라는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했다. 청일전쟁 초기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일본이 대한의 독립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외교적 입장은 계속해서 현상유지 정책이었다. 그러나 1894년 7월 23일 일본의 경복궁 습격 사건으로 인해 조선을 장악하려는 일본의 속셈을 파악한 러시아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러시아의 선택지는 ① 일본과 손을 잡고 영국 등 유럽에 대항한다, ② 일본이 러시아의 극동 이권을 침해할 경우 전쟁을 치른다, 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당시 일본에 공사로 파견되어 있던 히트로보(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Хитрово)는 전자의 선택지를 주장하였고, 1895년 2월 21일 일본의 니시(西德二郎)와 러시아의 쉬신킨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는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그 자체로 인정하겠다는 약속(in fact as well as in name)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에 주차하고 있던 일본 공사관 이노우에 가오루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한국은 완전히 일본의 손아귀 안에 있었으며, 이노우에는 이미 한국 정부에게 위싱턴 공사관을 폐쇄하고 일본 공사관이 조선 관련 업무를 함께 관할하겠다는 명령까지 내린 상태였다. 조선의 공사 베베르(Карл Иванович Вебер)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려 하고 있다는 전보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1895년 3월까지도 러시아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침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으며, 계속해서 일본과의 우호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북쪽에 부동항을 차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러시아 외무부의 이러한 잘못된

¹³ 김영수. (2017). 주한 러시아공사 쉬삐이에르의 외교활동과 한국정책. 역사학보, 233, 151-180.

상황 판단에는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 히트로보의 착오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국 1895년 4월 17일 일본이 청국과의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 랴오둥 반도를 완전히 차지해버리자 그제야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협력하여 삼국간섭(4/23)을 통해 반도를 돌려 내도록 하였고, 한국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¹⁴ 쉬삐이에르는 이렇듯 러시아가 조선 내에서 새로운 입지를 구축하고 일본을 더욱 강경하게 견제해야 할 필요성 하에서 전략적 수단으로서 투입되도록 계획되었다.

Ⅲ. 쉬삐이에르의 1차 조선 파견과 아관파천

(1) 조선 공사(1895~1896) 시절

니콜라이 이쁜스키의 일기에 따르면 쉬삐이에르는 1895년 12월 21일 일본 요코하마에 주둔하고 있던 군함 <나히모프(Нахимов)>호를 타고 조선으로 떠났다. 그는 쉬삐이에르가 한국의 훌륭한 대사가 되고, 그의 아내인 안나 에라스토프나(Анна Эрастовна)는 한국인들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서술했다.¹⁵ 1896년 1월 12일 서울에서는 베베르가 오후 4시에 국왕을 알현하여 소환장을 전달한 후, 공사관의 지휘권을 쉬삐이에르에게 인계했음을 알리는 전보를 러시아 외무부에 올렸다.¹⁶ 베베르의 보고서에 따르면 쉬삐이에르가 도착하기 전인 1895년 8월 31일, 왕궁 내 담화 중 일본의 이노우에 백작은 1885년 쉬삐이에르가 공식적 자격 없이 방문하여 러시아군사교관 파견을

¹⁴ SIN SUNG-GWON. (1981). Russian Policy toward Korea, 1894-1895. 코리아저널, 21(11), 47-57.

¹⁵ "С половины экзамена в Катихизаторской школе встал, чтобы поехать на железную дорогу попрощаться со Шпейерами, отправляющимися в Корею. Для переезда дан им «Нахимов», одно из наших военных судов, стоящих в Иокохаме. Можно надеяться, что 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Шпейер будет хорошим нашим министром в Корее; можно надеяться также, что Анна Эрастовна, его жена, побудит его выхлопотать в состав Корейско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миссии священника, который сделается и миссионером для Кореи." (Равноапостольный Николай Японский. "Дневники. Том III, 1893-1899 гг.", 21 декабря 1895. Азбука веры.)

¹⁶ АВПРИ, ф.150, оп.493, д.49, лл.153-153об. 원문에는 12월 31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당시 일반적이던 그레고리력 대신에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1800년대의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은 12일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보고서 날짜에 12일을 더해야지 일반적인 양력 날짜를 얻을 수 있다. 이후 서술되는 보고서 속 날짜는 모두 그레고리력(양력)으로 바꾸었다.

강요했던 것을 언급하며 고종에게 쉬삐이에르를 믿지 말라는 조언을 했다. 그러나 고종은 이에 대해 쉬삐이에르의 그 어떤 음모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¹⁷

1896년 1월 14일 쉬삐이에르가 러시아 외무성 로바노프(Алексей Борисович Лобанов-Ростовский)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고종의 친척 이범진은 9월 26일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 러시아제국 공사관에 숨어있었으며, 그는 고종이 보낸 비밀 서한을 쉬삐이에르에게 전달했다. 그 서한의 내용은 국왕이 러시아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신과 세자를 떼어 놓으려는 일본인들의 음모를 저지해 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쉬삐이에르는 그의 보고서에서 일본의 목적은 조선을 일본화하는 것이며, 국왕은 거의 포로 상태이고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내정 간섭과 함께 강제로 상투를 잘린 국민들은 개화된 일본에 대하여 뿌리 깊은 증오심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서술했다.¹⁸ 이어서 1월 22일 쉬삐이에르는 또다시 로바노프에게 비밀 전문을 보냈다. 그 내용은 자신이 국왕의 청을 받고 1월 20일 국왕을 만나 뵈었는데, 일본 관리가 배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주제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배웅할 때 국왕은 자신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몰래 메모를 전해주었는데, 그 내용은 자신과 세자를 떼어 놓으려는 일본인들의 음모를 저지해 달라는 것이라고 그는 밝혔으며, 마지막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각하께서 제게 보낸 1월 17일자(원문에는 1월 5일자) 전문의 명령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로바노프가 쉬삐이에르에게 보낸 1월 5일자 전문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제정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를 계속해서 검색해보고 찾아보았으나, 그 전문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¹⁹ 그렇지만 을미사변 이후인 1895년 11월 9일, 로바노프가 조선 공사 베베르와 일본 공사 히트로보에게 보낸 문서에는 ‘현지에서 사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음모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국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승인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있다.²⁰ 이를 통해 고종은 을미사변 이후 지속적으로 러시아에게 보호 요청을 해왔으며, 러시아 외무성 또한 이에 대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쉬삐이에르는 2월 2일 ‘(조선)국왕이 삶의 위협을 느껴 수일 내로 세자와 함께 공사관으로 피신할 것이라고 비밀리에 우리에게 통보했으며

¹⁷ АВПРИ,ф.150,оп.493,д.6,лл.44-47.

¹⁸ АВПРИ,ф.150,оп.493,д.5,лл.5-7об.

¹⁹ 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제정러시아대외정책문서보관소(Архив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Ф)를 직접 방문하면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²⁰ АВПРИ,ф.150,оп.493,д.6,л.151.

허락한다는 답변을 보냈다’는 사실을 비밀전보로 알릴 수 있었던 것이다.²¹ 2월 11일 쉬삐이에르가 로바노프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국왕은 자신의 도주 날짜와 시간을 미리 자신에게 알려주겠다고 했으며 그 준비 상황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그러나 2월 5일부터 2월 11일 사이에 조선의 수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전신선이 망가졌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사실을 외무성에 보고하지 못했다. 원래 국왕은 2월 9일 러시아 공사관으로 오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러시아 공사관 병사의 수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오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꾸었다. 따라서 쉬삐이에르는 해군 소장 알렉세예프(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Алексеев)에게 급히 대규모의 무장 상륙부대를 공사관에 파병해줄 것을 요청²²했으며 이에 따라 2월 11일 오전 7시 30분에 여객 가마를 타고 여객 옷을 입은 국왕과 세자가 도착했다. 러시아 제국 공사관의 도움으로 국왕은 평화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쉬삐이에르는 보고했다.²³ 위와 같은 보고를 통해 흔히 베베르와 친러파 인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 아관파천의 경위가 실은 국왕의 요청과 이범진의 연락책 역할, 그리고 쉬삐이에르의 결정적인 군사 파견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아관파천은 러시아 정부의 직접적인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선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하여 알렉세예프 장군은 1896년 2월 17일 일본에 있는 니콜라이 이븐스키를 찾아가, 한국에서 일본에 대항하는 소란을 일으킨 베베르와 쉬삐이에르의 ‘무분별함’에 대하여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다분히 친일본적 성향을 지닌 니콜라이 이븐스키는 “한국인들은 마치 아이와 같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일본인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해주었지만, 우리 러시아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²⁴ 이를 통해 아관파천을 직접적으로 주동한 것은 한국에 공사로

²¹ АВПРИ, ф.150, оп.493, д.5, л.78.

²² 1897년 8월 22일 니콜라이 이븐스키의 일기에 따르면 당시 쉬삐이에르의 요청에 따라 연장자로서 130명의 장교들을 이끌고 군용 선박을 파견했던 인물은 러시아의 육군 대령 블라지미르 페트로비치 카르니엵(Владимир Петрович Корнеев)이었다. 그는 파견 당시 군인들을 먹이는 일을 쉬삐이에르의 아내인 안나 에라스토프나가 담당했다고 말했다. (Равноапостольный Николай Японский. "Дневники. Том III, 1893–1899 гг.", 22 августа 1897. Азбука веры.)

²³ АВПРИ, ф.150, оп.493, д.5, лл.25-31об.

²⁴ "Был адмирал Алексеев с флаг-капитаном. Вчера наши четыре военные судна пришли в Иокохаму. Говорил адмирал о неблагоприятии Вебера и Шпейера, ныне поднявших кутерьму в Корею против Японии. Корейский народ, точно дитя, не может жи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Японцы и помогали ему – делали там многое, а мы ничего не сделаем..."

부임해 있던 쉬삐이에르와 그와 함께한 베베르였으며, 러시아 외무부는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훈령 혹은 승인을 내린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수(2010)는 자신의 연구에서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는 러시아 정부가 고종의 아관파천을 사전에 승인했고, 니콜라이 2세의 동의에 따라 제물포로 특별히 함정이 파견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당시 한국에 파견된 군함 아드미랄 꼬르닐코프(Адмирал Корнилов)는 일상적으로 자국 공사관을 보호하고 외교행랑을 운반하기 위해 제물포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군함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군함이 한국에 파견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러시아 정부의 ‘사전 승인’ 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²⁵ 이를 뒷받침하는 또다른 근거는 쉬삐이에르가 2월 26일 로바노프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쉬삐이에르는 그 보고서를 통해 당시 러시아가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만 했던 필요성과 한국의 보호자와 후원자로서의 역할이 자국에게 가져올 수 있는 이득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는 만약 제정러시아가 극동에서 혼란을 회피하고자 이러한 역할을 거부하고 간섭을 방기했다면, 엄청난 혼란이 빚어졌을 것이며, 이를 통해 태평양 연안에서 자국의 힘을 확실히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⁶ 더욱이 당시 조선의 전신선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쉬삐이에르가 아관파천의 계획을 러시아 정부에 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신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러시아 정부는 이에 대해 승인 혹은 반대의 입장을 쉬삐이에르에게 전달할 수 없었고, 그 최종 계획의 실행은 오로지 조선 내 쉬삐이에르와 베베르의 판단 하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1896년 2월 25일 주한 프랑스 공사가 프랑스 외무부에 보낸 보고서에서는 아관파천의 경위에 대한 쉬삐이에르의 자세한 변이 수록되어 있다. 그가 서울에 도착해 본 조선 조정의 상황은 고종이 대신들의 눈치를 보고, 대신들은 일본인 관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 구도 속에서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왕이 비밀리에 궁을 떠나도록 하여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를 모시고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²⁷ 그는 러시아 공사관에서 국왕이 온갖 제약에서 벗어나 현직 대신들을 해임하고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것까지 계획에 넣은 것이다. 그는 아관파천 계획을 듣고 실행에 주저하는 고종을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궁에 머무를 경우 살해당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 그를 보호하기 위한 해군력을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다. 고종이 일본의

(Равноапостольный Николай Японский. "Дневники. Том III, 1893-1899 гг.", 17 февраля 1896. Азбука веры.)

²⁵ 김영수. (2010). 특집 : 근대한러관계연구: 아관파천과 한러관계의 진전 ; 아관파천, 1896: 서울, 도쿄, 모스크바. 사림(성대사림), 35(0), 59-84.

²⁶ АВПРИ,ф.150,оп.493,д.5,лл.37-41об.

²⁷ 고종시대사 20 『프랑스외무부문서』 7권 (1895~1896), 【54】국왕의 아관파천과 내각 교체.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의 포로가 되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도착한 이후로 완벽하게 행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러시아가 영향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 가운데 국왕이 신임 대신들과 자유롭게 통치하도록 내버려둘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쉬삐이에르는 대외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아관파천을 감행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인 자제와는 달리 쉬삐이에르와 베베르는 내면적으로는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처럼 유리하게 전개된 한국사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았다. 이 두 외교관은 러시아인 고문이 내각의 모든 회합에 참석, 그들을 지도하고, 재정지원의 중요성에 따른 재정원조, 한국군대의 조직을 맡게 될 러시아인 고문 및 3,000명의 러시아군의 파견 등과 같은 고종의 요구를 동봉하여, 이의 신속한 수용을 두 번이나 자국 정부에 촉구하였다.²⁸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은 선행연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쉬삐이에르가 외무성의 승인을 받지 않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일본에 좌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김영수(2010)는 그의 연구에서 아관파천 이후 그의 일본으로의 전출 명령이 러시아 정부의 쉬삐이에르에 대한 견책이라고 보았으나, 니콜라이 이븐스키의 일기에 따르면 그의 일본 대리 공사 부임은 아관파천이 있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1896년 2월 9일 일본 주재 러시아 공사 히트로보가 니콜라이 이븐스키를 찾아와서 자신이 2주 뒤에 러시아로 돌아가는데, 부재 중인 외교 공관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에서 쉬삐이에르를 부르고 있다는 말을 비밀리에 했다고 쓰여있다.²⁹ 이를 통해 쉬삐이에르의 일본 대리공사 부임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며 2월 11일에 결론적으로 행해진 아관파천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아관파천을 함께 모의한 베베르가 서울 주재 공사로 다시 유임되었다는 사실을 볼 때, 쉬삐이에르의 일본 부임은 견책성 인사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해당 사건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쉬삐이에르는 1897년 8월 16일에 새로운 일본 공사 로만 로마노비치 로젠(Роман Романович Розен) 남작이 도착하기 전까지 임시로 일본에 부임했던 것이며 이후 다시 서울에 돌아와 서울 주재 러시아 공사에 임했다.

²⁸ George Alexander Lensen,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ies in Korea and Manchuria, 1884~1889(Tallahassee: 1982) Vol. II, pp.592~593.

²⁹ "Во время совершения бракосочетания в Церкви был, между прочим, посланник наш – 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Хитрово, приехавший ко мне и не нашедший меня в комнате. Он приезжал попрощаться: чрез две недели едет в Россию. По секрету говорил, что вызывает для упра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миссией в его отсутствие из Кореи Шпейера."
(Равноапостольный Николай Японский. "Дневники. Том III, 1893–1899 гг.", 9 февраля 1896. Азбука веры.)

1896년 3월 13일에 쓰여진 니콜라이 이쁜스키의 일기에 따르면 한국에서 막 돌아온 쉬삐이에르는 일본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다. “이제 한국에서 일본인들의 위세는 완전히 손상되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매우 존경받았지만, 지금은 모든 한국인들이 그들을 극도로 싫어한다. 지금 한국에서는 모든 낡은 것들이 부서졌지만, 그것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일본은 아무런 역사적 경험 없이, 또 다른 민족들의 역사에 대한 지식 없이, 아무에게도 묻거나 조언을 구하지 않고 한국을 변혁하려 하였고, 그러한 이상적 생각은 한국을 어려움에 빠뜨렸으며, 자기 자신인 일본 또한 어떻게 빠져나올지 모르는 어려운 상태로 빠뜨렸다. 현 총리인 이토는 최근 일어난 비극에 대하여 오히려 좋아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 사건은 한국의 문제를 러시아와 엮이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일본이 이 어려운 문제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³⁰ 이를 통해 쉬삐이에르는 자신이 주도한 아관파천의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이 일본을 어려운 문제에서 손을 떼도록 도와주었다는, 조금은 편협한 우월의식까지도 느끼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2) 일본 대리공사(1896~1897) 시절

쉬삐이에르는 이미 일본 대리공사에 부임하기 전부터 주일 러시아 공사관 서기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는 일본 공사 권한대행을 맡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한 1차 사료를 이번 조사를 통해 처음 발굴했다. 일본 외무성 백작인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가 해군경 가와무라 스미요시(川村純義) 중장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쉬삐이에르가 주일 러시아 공사관 임시대리공사를 한 정확한 날짜를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해당 편지가 1885년(메이지 18년)

³⁰ “Был 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Шпейер, заменивший здесь Посланника на время его отлучки. О Корее рассказывает, что японцы там совсем скомпрометировались. Было их положение лет десять тому назад очень хорошее – их считали благотворно действующими двигателями вперед и уважали; ныне же все корейцы ненавидят их до крайности – старая, вековая вражда вполне возбуждена. Ныне в Корее все старое сломано, но на место его нового ничего не введено, оттого и нынешняя неурядица в Корее. Японцы без всяк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опыта и знания истори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ни у кого не спрашиваясь, ни с кем не советуясь, принялись за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Кореи – и вышло одно идеальничанье, причинившее много бед Корее и поставившее саму Японию в затрудните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из которого она не знает, как и выйти. Граф Ито, нынешний премьер, по-видимому, даже рад пришедшей последней катастрофе;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она выведет Японию из трудного положения, втянув в дела Кореи и Россию. Таковы речи Шпейера, только что вернувшегося из Кореи.” (Равноапостольный Николай Японский. “Дневники. Том III, 1893–1899 гг.”, 13 марта 1896. Азбука веры.)

12월 9일 쓰여졌기 때문에, 알렉산더 다비도프(Alexander Davydov)가 1885년 11월 20일에 퇴임하고, 1886년 1월 28일에 드미트리 셰비치(Dmitry Shevich)가 전권특명대사로 부임하기 전까지 쉬뻬이에르가 주일 러시아 공사관의 대리공사 직무대행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¹ 이 점은 이전의 선행 연구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것인데, 이미 쉬뻬이에르가 조선에 공사로 파견되기 전부터 일본과 동아시아 정세에 밝은 인물이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국 외무대신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주한 일본공사였던 가토 마스오(加藤増雄)에게 보낸 보고서에서는, 러시아가 쉬뻬이에르를 조선에 파견한 이유가 일본 때문이라는 사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³² 그가 일본의 대내외 사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러일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그가 조선에 가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쉬뻬이에르의 조선 파견은 다분히 의도적인 러시아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라 하겠다.

IV. 쉬뻬이에르의 2차 파견과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쉬뻬이에르는 일본 대리 공사로 부임했을 당시 베베르의 유화적 태도에 대하여 불평을 늘어놓은 바가 있다. 니콜라이 이븐스키의 1896년 10월 18일 일기에 따르면, 3시쯤 쉬뻬이에르가 그를 찾아와 한국에서 우리의 일이 잘 안되어가고 말했는데, 베베르는 멍청하고 미국의 편에만 선다고 주장했다. 또한, 쉬뻬이에르는 베베르가 미국인들에게 여러 이권을 주는 것에 조력하고 자신들과 기타 국가 등을 배제한다고 불평하는 프랑스인들을 싫어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외교적인 일에는 전혀 소질이 없는 전 외무성 로바노프에 대해서, 전 일본 공사 히트로보의 본분에 대해서 등등을 이야기하며 한 시간 반 가량을 앉아있었다고 한다.³³ 이를 통해 쉬뻬이에르는 조선의 일에 대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³¹ 外務省 公文録, 明治十八年・第十二卷・明治十八年十月~十二月

'露国公使館書記官「スペイヤ」臨時代理公使ノ職務執行ノ件'.

³² 駐韓日本公使館記録 12권, 二. 機密本省來信 (33) '베베르 씨의 去就에 관한 件'.

³³ "В третьем часу был поверенный в делах Шпейер. Говорил, что Корею наши дела плохи, – Вебер глупит, стоит за американцев, американские миссионеры обошли его; не любит французов, которые жалуются, что он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даче разных концессий американцам и устраняет их, французов, и прочее. Говорил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о князе Лобанове, бывшем министр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 нашем здесь, который будто бы совсем не годен для

확신하고 있었으며 베베르와 러시아 외무부의 소극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쉬삐이에르는 1897년 다시 주한 러시아 공사로 파견되며, 베베르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³⁴ 또, 쉬삐이에르는 미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친미 성향의 서재필이 창립한 독립협회와 그 활동들(독립문 건설, 독립신문 발간 등)에 대해 쉬삐이에르는 ‘미국과는 미국에 있어야지 조선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불쾌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특별히 서재필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었는데 ‘서재필은 하찮은 미국의 의사일 뿐입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친한 하인일지라도 그 사람에게 치료받으러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이 싫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³⁵ 쉬삐이에르의 미국에 대한 견제는 아관파천 이후 러시아가 대한제국의 내각을 구성하는 데 별다른 간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대와 달리 친러 성향의 대신들이 아닌 친미 성향의 대신들이 내각의 주를 차지하며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이 생각보다 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립협회가 1897년 11월 11일 대한제국 선포를 기념하여 연회를 개최하였을 때, 오후 4시에 독립협회 회관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연회가 열렸는데, 쉬삐이에르는 이에 의도적으로 불참하며 독립협회와 친미 인사들에 대한 비토 정서를 드러내었다.³⁶

쉬삐이에르는 대한제국의 정무를 자신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 조병식을 외부대신에 앉혔다. 그리고 조선의 모든 재정 관련 부서들의 관리를 이제부터 러시아인에게 맡긴다는 취지의 계약, 또는 조약을 체결했다. 1898년 10월 12일에 쉬삐이에르가 외부에 서신을 보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렸다. “조선인들이 주도하는 반러시아 운동 소식을 듣고 러시아 황제가 경악했다. 러시아 정부는 고종의 요청에 따라 군사 교관과 재정 고문을 파견했다. 만약 조선 정부와 국민들이 러시아 고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대로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службы, о долгах Хитрово, то же Устинова и прочих); просидел полтора часа.” (Равноапостольный Николай Японский. “Дневники. Том III, 1893–1899 гг.”, 18 октября 1896. Азбука веры.)

³⁴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4(한국사료총서 번역서4), 1897년(개국 506년, 광무 1년, 정유년) 9월 20일《월요일》 맑음.

³⁵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4(한국사료총서 번역서4), 1897년(개국 506년, 광무 1년, 정유년) 9월 22일《수요일》 맑음.

³⁶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4(한국사료총서 번역서4), 1897년(개국 506년, 광무 1년, 정유년) 11월 11일《목요일》 화창한 날씨.

말해주어야 한다. 러시아 황제는 조선 정부가 러시아의 지원에 의지하기로 결정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신다. 24시간 안에 이에 대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³⁷

1897년 9월 2일 러시아 정부는 주한 러시아 공사를 쉬뻬이에르로 교체하여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력 확장의 기회를 노리고자 했다.³⁸ 이에 분명히 쉬뻬이에르가 일본통이라는 사실이 반영된 것이다. 쉬뻬이에르는 먼저 러시아의 부동항 설치에 앞서 부산 절영도의 저탄고 기지 조차(租借)를 요구해 왔다.³⁹ 이는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으로부터의 격분을 샀다. 대한제국 황실의 군대를 러시아 군제에 따라 편성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13명의 러시아군 장교와 다수의 사병을 데려왔으며,⁴⁰ 러미노프(Reminoff)를 기기창(機器廠) 고문으로 두어 군수 물자의 공급을 독점하려 했고,⁴¹ 1,000명의 러시아군과 러시아공사관을 지킬 300명의 코사크 기병을 불러와 도합 1,300명의 러시아군을 서울에 주둔시키려고 하였다.⁴² 그리고 대한제국의 재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대한제국 탁지부 고문을 영국인 브라운(J. McLeavy Brown)으로부터 러시아의 전 재무장관 대리 알렉세예프(Kir Alexeiev)로 교체하였다.⁴³ 또, 한국의 탁지부 재정자금과 황실의 금융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 로한은행(露韓銀行, The Russo-Korean Bank)을 창립하여 본점은 제정 러시아 수도인 페테르부르크에 두고 지점은 서울에 두어 한국의 재정과 금융에 영향력을 끼치려 했다.⁴⁴ 이 로한은행은 한국 정부의 위임 아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도 발행하였다.⁴⁵

37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4(한국사료총서 번역서4), 1897년(개국 506년, 광무 1년, 정유년) 3월 10일(18일)《목요일》

38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11권 3-1, 19세기 말의 동북아시아의 정세.

39 『駐韓日本公使館記錄』(機密本省往信), 1897년(明治 30년) 9월 24일조, 「機密第6號, 絶影島借地ニ關スル露公使ノ申込」.

40 『奏議』(議政府編), 제6책, 建陽2년 4월 30일조, 「奏本第95號, 俄國教練師及諸員聘用事」 및 『駐韓日本公使館記錄』(機密本省往信), 1898년(明治31년) 1월 21일조, 「機密第5號, 露兵招來拒絶ニ關スル件」.

41 『議政府來去文』(外部編), 제3책, 建陽2년 5월 6일조 「旨令第33號」 및 『奏議』(議政府編), 제6책, 建陽2년 3월 8일조, 「奏本第98號, 機器廠俄國士官우렘노프雇傭續約事」.

42 『駐韓日本公使館記錄』(機密本省往信), 1898년(明治31년) 1월 28일조, 「機密第5號, 露兵招來拒絶ニ關スル件」.

43 『The Independent』, 1897년 10월 5일자, 「Local Items」.

44 『俄案』, 문서번호 972, 光武 2년 1월 27일조 및 문서번호 987, 光武 2년 2월 22일.

45 『The Independent』, 1898년 3월 1일자, 「Russo-Korean Bank」.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의 조선 내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는 기본적으로 민중들의 반대에 부딪혀야 했고 1888년 러시아는 군사교관과 탁지부 고문 철수라는 뼈아픈 결과를 맞이해야 했다. 쉬삐이에르는 1887년 9월 25일 M. H. 무라비요프에 보낸 보고서에서 ‘한국 제반 사정이, 이곳의 지역적 조건이 요구하는 만큼, 그리고 나약한 조선 군주가 기대하는 만큼, 우리가 불행한 이 변경지역의 운명을 책임질 지도자의 역할을 맡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⁴⁶ 그는 아관파천 당시에 러시아 측이 ‘조선 문제에 대해 호의적이면서도 더불어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 것은 우선 적극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맡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아관파천과 그 이후의 경과가 기본적으로 한국을 독립국으로 유지시키려는 정책의 연장선에 있었음을 밝혀 두었고 러시아와 일본 간의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의 내용이 공개되며 조선인들의 민심을 러시아 측이 잃었다고 한탄했다. 그는 ‘현재 우리를 믿는 유일한 사람은 조선국왕’이라며 황실의 지지를 얻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일반 민중들에게 배척 받는 결과를 낳았음을 시인했다.

그는 러시아의 극동정책 실패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회고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① 러시아와 일본 사이 맺어졌던 협약이 대중들에게 왜곡되어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쉬삐이에르는 타국의 외교관들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조선 측에 러시아에 대한 불리한 언급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② 대원군을 비롯한 반외세 세력의 인종주의에 기반한 적대적 반감이다. 쉬삐이에르는 대한제국 내에 여전히 대원군을 따르는 대신들과 관리들이 있음을 지적한 뒤, 그들이 러시아에 대해 비타협적 적대와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했다. ③ 기존 대한제국 군대 소속 사람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다. 그는 조선인들의 부패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제국 군대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기존 군대가 폭넓게 누려오던 불법 수익들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들의 극렬한 반대를 방해 요인으로 꼽았다.

V. 결론

본고에서는 АВПРИ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소장 자료와 니콜라이 이쎄스키의 일기, 그리고 일본 외무성의 자료와 영국 신문, 윤치호의 영문일기 등의 1차 자료를 참고하여

⁴⁶ АВПРИ, ф.150, оп.493, д.7, лл.116-123 об.

쉬삐이에르의 조선 파견 이전 행적과 조선 파견 이후 활동들을 재구성해보았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었던 사실은 쉬삐이에르가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슬라브주의자였다고 보다는, 러시아의 이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혁신적 외교관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어디까지나 러시아의 외교관으로서 자국의 국익을 계산하는 노련한 인물이었다.

을미사변 이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더 막강해졌고, 러시아는 극동 정세의 균형 속에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김을 차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1884년에 주일 러시아 대리공사 직무대행을 역임한 바가 있기에 일본에 대해 잘 알고 있고, 1884년에서 1885년까지 조선에 파견된 경험도 있는 쉬삐이에르가 해당 일의 책임자로 뽑히게 된 것이다. 그는 이미 1890년에 페르시아 대리공사로 있으면서 철도 건설 계획과 관련해 러시아의 이권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는 협상 태도를 보였고, 협상을 없던 일로 만들기도 했다. 그의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외교술은 러시아 정부의 신임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삼국간섭 이후로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은 극에 달했고, 전략적 요충지로서 조선이 가지는 지위에 대한 관심은 커져만 갔다. 아관파천은 이런 상황 속에서 러시아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신임 공사 쉬삐이에르의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이다. 그는 단순히 러시아 공사관에 고종을 볼모로 잡아 국제 협상 무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늘리려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각을 장악하고 있는 대신들이 친일 성향인 것에 불만을 가졌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관파천을 실행했다. 아관파천의 실행 자체는 통신선의 문제로 러시아 정부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쉬삐이에르, 베베르 두 외교관의 결단으로 이루어졌으나 전후 처리 과정에서 러시아의 도움과 목인이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후 2차 파견에서 쉬삐이에르는 노골적으로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이러한 시도는 경제, 군사, 정치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러나 1898년 3월, 대한제국이 러시아에 대해 군사교관과 탁지부 고문 철수를 요청함으로써 러시아는 대한제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잃는 결과를 얻었다. 쉬삐이에르는 러시아 정부의 방침대로 일본을 자극하지 않는 온건한 정책을 통해 대한제국이 일본 손에만 들어가지 않도록 독립국으로 관리하려 했으나, 그의 예상과 달리 고종은 어디까지나 타국과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러시아에 의존했을 뿐, 완전히 러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기본적으로 서양 세력이었던 러시아에 대한 한국 민중들의 반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는 인종주의적인 문제기도 했고, 외부인이 들어와 기존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따라서 제정 러시아의 극동 정책 실패의 원인은 저 자신의 특성에서 기인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요컨대 쉬삐이에르 개인의 ‘슬라브주의’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슬라브’ 자체가 제정 러시아 극동정책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이다.

VI. 참고 문헌

<1차 자료>

고종시대사 20 『프랑스외무부문서』 7권 (1895~1896), 【54】 국왕의 아관파천과 내각 교체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4(한국사료총서 번역서4)

А В П Р И 러시아 대외정책문서보관소 소장 자료

Р а в н о а п о с т о л ь н ы й Н и к о л а й Я п о н с к и й. “Д н е в н и к и. Т о м
III, 1893-1899 г г.” , А з б у к а в е р ы. (https://azbyka.ru/otechnik/Nikolaj_Japonskij)

『俄案』, 문서번호 972, 光武 2년 1월 27일조 및 문서번호 987,

『駐韓日本公使館記録』(機密本省往信

『奏議』(議政府編), 제6책

『議政府來去文』(外部編), 제3책

『The Independent』

<2차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11권 3-1, 19세기 말의 동북아시아의 정세.

김영수. (2010). 특집 : 근대한러관계연구: 아관파천과 한러관계의 진전 ; 아관파천, 1896: 서울,
도쿄, 모스크바. 사림(성대사림), 35(0), 59-84.

김영수. (2017). 주한 러시아공사 쉬뻬이에르의 외교활동과 한국정책. 역사학보, 233, 151-180.

김종현. (2008). 슈페이에르와 러시아 공사 베베르의 조선 내 외교활동—1884 ~ 1894.

대동문화연구, (61), 125-163.

SIN SUNG-GWON. (1981). Russian Policy toward Korea, 1894-1895. 코리아저널, 21(11),
47-57.

Balaghi, Shiva. "Nationalism and cultural production in Iran, 1848--1906." University of
Michigan, 2008.

George Alexander Lensen, “Balance of Intrigue: International Rivalries in Korea and
Manchuria” , 1884~1889(Tallahasse: 1982) Vol. II, pp.592~593.

John S. Galbraith. “British Policy on Railways in Persia, 1870-1900” . Middle Eastern
Studies Vol. 25, No.4(Oct., 1989), pp.480-505.

О л е г Г о к о в. 『О ч е р к и П е р с и д с к о й к а з а ч ь е й

б р и г а д ы(1878-1895): п о р у с с к и м и с т о ч н и к а м』.

У н и в е р с и т е т Д м и т р и я П о ж а р с к о г о, 2018.